중국 선불교 다시 살아난다

4개성서 불교학술회의 잇달아 열려
의천 · 김지장 · 마조선사상 재조명 활발
당국 관광문화 개발차원 적극 유치

중국에서 불교 학술회의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중국 구화산에서 4개 성 인민정부가 주최한 불교학술회의가 열린 것을 비롯해 12월부터 태고 보우국사, 의천 대각국사, 마조 선사, 김지장 스님과 관련한 한중 불교학술회의가 연이어 열린다.

중국 안휘성, 사천성, 절강성, 산서성 인민정부는 공동으로 16~18일 안휘성 지주시 구화산풍경지구 지주시 호텔에서 구화산, 아미산, 보타산, 오대산 등 중국불교의 4대 성지와 관련한 불교학술 및 불교관광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4개 성의 주요간부와 홍콩 · 한국의 스님과 불자, 언론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한국측에서는 최석환 불교춘추사 발행인이 '김지장의 입당 구법과 구화산 선종의 차문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또 12월중에 4개 한중 불교학술회의가 잇달아 열려 중국 내 불교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킬 전망이다.

중국의 호주시불교협회와 '호주육우 다문화연구회'는 한국의 태고학회 후원으로 12월 8일 중국 호주시 장성호텔에서 '중국 원대 선종과 차문화 학술회의'를 연다. 또한 절강대학 한국학연구소와 불교춘추사가 12월 12~13일 항주 화가산호텔에서 '대각국사 의천의 생애와 사상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구화산풍물관리위원회와 한국차문화협회가 내년 4월 20일 김지장스님의 비석 건립을 겸한 김지장 스님의 '선다일미'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회의를 연다.

특히 강서성불교협회 및 남창시불교협회는 이에 앞선 12월 23~25일 강서성 남창시 마조 열반도량 보봉사에서 '마조선의 현대적 조명'을 주제로 대규모 국제학술회의를 연다. 강서성불교협회장 일성스님(보봉사 방장)의 '마조와 강서선종의 이해'란 기조강연에 이어 열리는 학술회의는 '강서선종과 마조선', '달마 선종은 마조선', '마조선이 현대불교사에 미친 영향' 등 3대 주제하에 모두 21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한국측에서는 전 범어사 강주 백운스님, 홍광표 동국대 교수 등 10명이 논문을 발표한다.



◇16~18일 중국 구화산에서 열린 4개 성 공동주최의 불교학술회의에는 500여명이 참석해 중국내 불교 열기를 고조시켰다.

최근 이같은 중국의 불교학술회의 붐은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불교문화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불교관련 학술회의는 '종교'라는 타이틀이 붙어 허가가 나지 않았으나, 최근 잇달아 각 성(省) 인민정부와 불교협회 차원에서 불교학술회의를 적극 유치해 불교전통문화 진작을 통한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월암스님(중국선사상연구소장)은 "중국에서 전통 선종사상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베이징올림픽이 중국불교를 되살리는 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용문복지관 개관

진각종, 20일 대전에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통리원장 효암)은 20일 대전시 용문동에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고, 문화복지재단으로 한걸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로써 진각복지재단은 부산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서울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에 이어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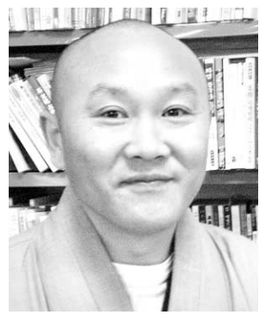
이재선 의원, 박병석 의원과 홍선기 대전광역시장, 가기산 서구구청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개관식(사진)에서 효암 통리원장은 "지역주민의 정서적 통합과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축면적 604평(1997㎡) 지상 지하 도합 5층 규모의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은 강당, 피아노실, 물리치료실, 컴퓨터실 등을 갖추고 있다. 대전=강유신 기자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불교회관 · 대학 세워 문화포교 나서야죠"

함안군불교련 법연스님



불교 남방전래설을 간직한 가락국(駕洛國)의 6가야 중 아라가야(阿羅伽倻)의 영역에 자리잡은 경남 함안군. 인구 7만여명의 작은 군이지만 불연(佛緣)이 깊은 지역이라 함안 대산리 석불(보물 71)을 비롯한 9개의 국가지정문화재와 21개의 지방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군내 80여개 사찰 중 절반인 40여개 회원사찰을 이끌고 있는 함안군불교연합회 회장인 법연스님(장춘사 주지)은 "가야읍내에 아담한 불교회관을 마련해 불교 단체들의 신행공간을 제공하고 불교대학을 만들어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포교에 나서고 싶다"는 소박한 서원을 밝혔다.

조선 중엽부터 매년 4월 초파일을 전후해 함안면 괴산리 이수정에서 열린 고유 민속놀이인 '이수정 낙화놀이'(연등과 연등 사이에 참나무 숯가루로 만든 落火를 매달아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불꽃놀이)가 1985년부터 재현될 정도로 불심이 깊은 지역 여건을 토대로 내실있는 활동을 벌여온 법연스님.

스님은 매년 초파일 연등법회와 제등행렬을 지역민의 동참아래 봉행해 오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연말에는 3년째 회원사찰의 스님들과 탁발행사를 벌여 불우이웃을 돕고 있다. 이런 선행이 주민들에게 익히 알려진터라 지난해에는 함안경찰서에 법당을 마련, 활발한 경승활동을 벌여 서내 경찰관들의 불심이 어느 지역 보다 돈독하다.

연말 탁발로 불우이웃 돕기

가락불교 연구사업 발원도

법연스님은 "종단 간의 화합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지역포교에 매진하겠다"면서 "여건히 허락되면 재야 사학자들과 함께 가락불교에 대한 연구사업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부산사랑 자선법회'

수익금 불우이웃 전달

부산시청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졌던 3일간의 야단법석이 막을 내렸다.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강선태) 주최로 16~18일까지 봉행된 '부산사랑 큰스님 초청 자선법회'는 1만여 명이 동참하며 부산불교의 저력을 과시했다. 부산아시안게임 성공기원과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마련된 이번 법회는 고산 스님, 진제스님 등 대덕스님들을 법사로 불법을 널리 펴는 장이 되기도 했다.

불교용품, 불교서화 판매 등 각종 바자와 보시금을 통해 수익금 1천 5백여만원을 모았다. 이중 일부는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급과 소방대원을 위한 격려금으로 전달되었고 나머지는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강선태 회장은 "부산 불교신도조직의 힘을 하나로 결집했다는데 큰 의미를 둔다"며 "앞으로 매년 불법홍포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대법회를 마련해 부산불교신도회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천태종은 총본산 구인사에서 사부대중 1만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900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했다.

"대각국사 수행정신 본받자"

19일 900주기 열반대재 봉행…1만여명 참석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19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 총본산 구인사에서 '11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대각국사 의천스님 900주기 열반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추모법어를 통해 "대각국사님의 종맥과 종통이 소백산 구인사 대도량에서 열매 맺었으니 스님의 원력 따라 더욱 더 수행에 매진하자"고 설했다.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추모사에서 "대선지식이요, 고승이며 대사상가로서 혜성같이 출현한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정신을 되새기자"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박준영 국정홍보처장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대각국사의 가르침인 국민화합을 통해 국태민안을 이루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천태종 스님들과 신도외에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 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 중국불교협회 도술인 부회장 등 중국 대표단, 일본 대표단 등 1만여명이 동참했다. 이경숙 기자

"테러 · 전쟁 없는 세상 발원합니다"

부산 감로사 3천배 법회

테러와 전쟁이 없는 세상을 위한 불자들의 간절한 발원이 17~18일 감로사 법당을 가득 채웠다.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문회(회장 정진모) 회원 60여명은 '테러와 전쟁이 없는 세상 기원 3천배 철야 정진 법회'를 열고 17일 저녁 7시부터 18일 새벽 5시 30분까지 정진을 늦추지 않았다.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문회의 3천배 정진은 올해 들어 세 번째. 6월에 참회 3천배 기도를 가진데 이어 9월에는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한 3천배 기도를 가졌다.

정진모 회장은 "세상이 살생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에 가슴 아파하며 시작한 기도"라며 이번 3천배 정진의 의미를 전했다.

특히 3천배 정진에 적극 협조하며 밤 11시 늦은 시간 법문을 마다하지 않은 감로사 주지 혜총스님은 "힘든 세상을 극복하는 원동력은 기도와 정진에 있다"며 "이번 3천배 정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신광사-광주 보훈청 자매결연

매년 순국선열 천도재

광주 신광사(주지 경주)와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서영원)은 17일 제62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신광사에서 신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법회를 개최했다.

두 단체는 자매결연을 계기로 매년 호국보훈의 달에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영령을 위한 추모 천도재를 봉행하기로 합의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달라이라마

아프간에 5만불 기부

티베트 종교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21일 330만여 아프간 난민을 위해 5만 달러를 기부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루드 러버스씨는 "우리는 난민에 대한 스님의 관심과 호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세계 모든 약자들을 자비심으로 어루만지는 스님처럼, 기부금도 난민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